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주최처>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길을 묻는 이에게 ● 답답하지 않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법공양 페이지

# 만물을 항상 자기와 둘 아니게 보라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자세히 아실 것 같으면 우주 한복판에 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복판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수만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제각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을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왜 주인공이라고 했느냐 하면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거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모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을 한번 들러서 말하면 성불입니다. 우리가 그냥 최초부터, 생명이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알고 이 법이 옳은가 그른지도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우리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의 문제를, 팔정도들을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있다는 거,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게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이 있다는 얘지요. 그게 불성이라고 한다면 높이 보기도 하고, 낮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높이를 보면 자기의 등등하게 동일하게 되지를 앉으니까 알게 보기도 하고, 높이 보기도 말고 항상 둘 아니게, 법당에 올라가더라도 부처님과 자기와 둘 아니게 마음도 공심으로 갖고 법도 공명으로 갖고 움직여지는 것도 공용, 공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뛰나고 하니가 배를 탁 탁 세 번 두들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게 없거든. 거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못하곤 돌아갔단 얘기입니다. 그거와 같이 간단하게 하러니까 이렇게 그냥 툭툭 떠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사는 원인이 마셨다가 토해내고 토해냈다 마시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한 생각에 펼쳐지기도 하고 들이 마셔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주 소소영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붙어 같이 살아야 할텐데 하고 그냥 자기 가 모르는 거니까 자기 주인공에다가 말

면 경계에 딱칠 때 주인공자리에 맡기고, 너무나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도 가라앉고 또 그 일이 잘 해결돼서 그때마다 스님께서 늘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데 꿈을 꿀 경우에 공속에서도 그런 경계에 다쳤을때에 생시에는 얼른 주인공자리에 맡겨지는데 공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고 또 이 공부하기 전에 어떤 거에서 쫓기거나 공속에서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일텐데 어쩌서 이렇게 생시에는 이루어지는데 공속에서는 그런 말조차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가끔은 공속에서도 맡기는 때가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제 믿음이 약하고 또 공부야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열심히 하면 공속에서도 쉽게 그 자

이 생길 줄 없는 거예요. 하도 아프니까 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아! 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급급차에 실려서 저의 도반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라, 참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사들하고 남자 분들이 전부 퇴원을 해서 여 간호사들밖에 없는데 그 때 저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서 짐작을 못하니까 소변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걸 빼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 2시에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시경서부터 소변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링겔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더 배가 불러 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는데 새벽 2시 경 쯤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주인공에 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스님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없구나 스님께 한번 말씀드리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때 제가 시계를 쳐다보니까 새벽 2시가 좀 넘었는데 제가 관을 하면 스님께서 깨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를 자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해 놓고 왜 스님께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 살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죠. 결국 얼마 안가면 거론이 되고 말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은 상당히, 관해서 그것을 없애야 될텐데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진짜로 그것은 화해서 말갈게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죠. 여러분, 잘들 공부하셔서 하지도 언짢지 않게 앉아서 천리 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모두 성의를 베푸십시오.

▲질문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오실 때에 답답한 이치가 많 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그거를 시작 할 때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를 생각해 놓고 하지 않고 거죽만 보고,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죠. 결국 얼마 안가면 거론이 되고 말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은 상당히, 관해서 그것을 없애야 될텐데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진짜로 그것은 화해서 말갈게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죠. 여러분, 잘들 공부하셔서 하지도 언짢지 않게 앉아서 천리 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모두 성의를 베푸십시오.

▲질문자: 제가 주인공에 맡기는 공부와 관하는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법을 만날 때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청년 범우의 손을 잡고 나 도 모르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까나다 스승이 자꾸 제 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는 몸이 너무나도 약했었어요. 간도 나쁘고 이런 몸살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 공부를 하고 제가 한 번 병원에 가야할까 싶었는데 안가고 한 번 넘어섰습니다. 그때 한 번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여태까지 감기와 몸살로 시달려 본 적도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몇 년 안에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만 살에 짓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걸음을 못 걷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해보겠노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크 1번과 2번 사이가 다 망가져 튀어 나와서 칼로 수술을 해야지 약물로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이 디스크계통에서는 저희 고장에서 좀 유명한 곳이었습니까. 그래 입원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왔 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열심히 관하는데 저 는 이 공부를 하면서 간혹 내 안에 스승이 깔까 자성으로부터 화두도 들었고 그런걸 풀어가기도 하며 지내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하고 있는데 영 낯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한번 강하게 해볼까 하는데 자성에서 에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와 동시에 저를 180도로 두 번을 좌우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부터는 얼마나 아프지 참을 길이 없 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스승이 병원에 가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참으라고 그 래도 참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몇 년만에 진통제를 사오라고 해서 진통제만 먹으려고 두 알을 먹었습니다. 그 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알 을 더 먹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관할 수 있는 여러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탕 탕 탕) 이것을 이렇게 한 그릇 들면 이 물 한 그릇이 우리가 보는 컵에다가 물을 담은 거죠. 그렇지만 이건 산과 물이 둘이 아니 데서 오는 겁니다. 산과 바다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물이 아닌 거기에서 그냥 내가 훌쩍 마실 수 있어야 된다. 마실 수만 있어도 아니 된다. 그걸 마셨으면 토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스님들이 배우 는 겁니다. 마시기만 하고 토해낼 줄 모른다면 세 생생생의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 가질 못 합니다. 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그냥 앉아 계신 줄만 아시죠? 여러분이 공부할 하시면 부처님이 오는 사이도 없고 가는 사이도 없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무조건 믿 어라. 당신이 살았으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모든 것을 거기가 맡기고, 예를 들어서 아주 기묘한 문제가 있 습니다.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동자도 되고, 때로는 관세 음도 되고, 때로는 지장도 되고, 때로는 지 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별의 별 가지각색 으로 화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대로 염하고 관하면 화한다는 말입니다.

### 부처님도 자기로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찾 기도 하고 살기도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걸 못 믿는다는 얘지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갈 때 말입니다. 이거 해가지 저거 해가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죽습니까? 죽어갈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다 놔야 합니다. 자기 불성이라고 다 놔야 바로 둘이 아니게 되는 하나의 일체 성이 됩니다. 불성이 된단 얘 기죠. 불, 부처가 된단 얘지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격 을 다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 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오히려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 내 몸을 생각하면은 세포 하나의 생명도 그냥 같이 있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생이란 얘 기죠. 공생이기 때문에 공심으로 돌아가 는 거죠. 공심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내가 공체로서 마음 쓰는 거를, 한 생각을 잘 해 야 공체로 돌아가죠? 공심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야 옳은 데로, 내가 생각하는 데로 가죠? 파도 돌아가고, 모두 공생이기 때문 에 공용으로 우리가 움직여진다. 하나서 부터 열까지 전부 공용이다 이겁니다. 공 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한 생각 잘못하면 공용이 되지를 않죠. 생각을 잘 해 낸다면 공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 과 모두를, 발 하나 때 놓는 거까지도 인 의롭고 부드럽게 잘 해야 된다는 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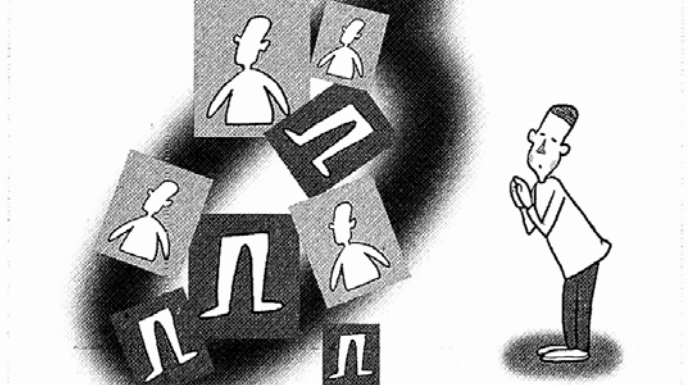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산과 바다가 본래 둘이 아니니 그것을 내가 훌쩍 마실 수 있고 마셨으면 또 토해낼 줄도 알자

기는 겁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요. 또 그걸 아는 분들은 자기가 그냥 결정을 지어오 되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정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사시지만 여러분이 충만하게 돼야 가정도 충만하고, 사회도 충만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돌아간다고 소립니다. 내가 충만치 못하고 충만치 못한 사람을 집안에서 가다 놓는다면 얼마 가가 막힐 겁니다. 고생을 하면서 한 참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충만치 못한 사람을 갖다 놓어도 충만하게 돌아간다고 소립니다. 우리가 몸으로 다니면서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도 그렇고 얼마나 부처님이, 돌부처도 나라를 구 하려고 애썼고 사명대사님 서신대사님 모 든 스님들이 다 나서서 군대를 만들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 지만 우리 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 다. 당초에 물이 조금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조금 조금 흘러내리는 거를 막질 못했기 때문에 확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 아 천에 앉어도 마음이 부자라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은 영령들도 다 공제가 되고 공심이 되니까요.

질문한 분 있으면 속 시원하게 질문하 시고, 시원하게 그대로 마음을 쓰세요. 나쁘고 좋고 없으니까요. 고가 있고 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믿습니다.

▲질문자: 저는 평상시에 이 공부를 하 면서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에 대해서 법을 청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에는 어

리에 맡기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지요? 법을 청하옵시다.

▲스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믿 으면 법칙, 우리가 죽을 때에 그냥 다 거 기다가 일임하고, 정말이지 진짜로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참나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관할 수도 있고,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 믿으면 과거가 앞으로 오더라도 이걸 해결 못 한단 말입 니다. 과거에 진 빚이라면 갚아야 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될 때도 있는 거는 불가부득이 해야 할 문 제,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몸에 배가 없고 아주 그냥 흥흥흥하는 아기가 있 었는데 드러누워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나거나 하구선 절 로 올라왔습니까.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 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까 지금 관하고 있는데 영 낯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 구들도 살겠다 이겁니다.

### 내탓이지 남의 탓 없어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문제가 아니기 않 습니까. 현실에서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저승엘 가야 없 을 수 있죠. 그래서 저승도 한발짝이요, 천당 도 한발짝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 만리 까마득한 문제죠. 마음공부해서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발짝이온 사이도 없고 간 사 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 려면 거길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 마음 부자면 절로 부자

그래서 그때 순간 저는 주인공을 믿으면 서도 의심이 났어요. 아, 이거 터진 게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통해서 이렇 게 사라질 수가 있나 하구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터진 게 아닌가 해서 간호 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가 와서 배를 만져보더니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가서 전화를 한 모양이예요. 없다면 의사 가 쫓아와서 그게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 라고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배나 그 양이 아주 조금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가 그때 의사가 퇴원을 하러니까 왜 퇴원을 안했느냐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 는 거예요. 인제 겁이 난 모양이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 럼 퇴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대학병 원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빨리 가리니 까 안 그렇나고 하길래 대학병원으로 갔 습니다. 또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할까 아니면 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서 아니다. 믿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만약 터졌더라면 주인공이 낮게 해 주겠지 하고 믿고 말았습니다. 그 때 시간이 흘러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을 것 같 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스님: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 많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질문자: 그래 역시 저번 한 2시경쯤 잠을 못 자면서 주인공에 관하고 있는데 문득 스님이 수행하실 때 공비로 몰려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나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순간 그런 생각이 나서 이튿날이 지나고 내가 퇴원을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후 이튿날이 됐는데 과장님이 오시더니 느닷없이 내일 퇴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식 구들이 박수를 치고, 저는 수술이 칼로 꼭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수술도 안하고 내일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한참 놀래 가지고 박수를 치더군요. 그래서 이튿날 저는 퇴 원을 해서 도반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